



HANA
THE NEXT
하나더넥스트

이달의 투자가이드

2026.08



하나더넥스트 이용 안내



홈페이지



카카오톡채널



라운지 상담 예약

QR코드로 하나더넥스트에 접속하시거나
카카오톡채널 '하나더넥스트'를 구독해주세요

하나더넥스트 라운지 상담 예약번호 **1599 - 1478**

목차

- 001 이달의 투자가이드 요약
- 002 2026년 08월 주요 시장 이벤트
- 003 2026년 하반기 포트폴리오 비중 제안 예시
- 004 미국주식: 반도체 섹터는 속도 조절 중
- 005 중국주식: 반등하는 홍콩 지수
- 006 한국주식: 반도체 제외하고 선별적인 접근 필요
- 007 채 권: 이란 전쟁 우려는 금리 상승 압력
- 008 환 율: 일단 상승이 멈춘 원/달러 환율
- 009 금 : 관심이 줄어든 금 가격은 숨고르기 중

※ 본 콘텐츠는 경제 및 투자여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 배포되는 자료로서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 투자결정은 투자자 본인의 판단 및 책임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정보(시황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 등)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라도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성과가 미래의 투자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본 자료에 제시된 어떠한 예상, 예측 또는 전망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본 콘텐츠 저작권은 하나더넥스트에 있으며, 사전 서면동의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복제, 배포, 전송, 대여 등이 금지됩니다.

이달의 투자가이드 요약

- 한국 증시는 반도체 외로 수급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코스피는 반도체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투자의견 중립 유지하며 코스피 대비 코스닥 수익률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중국은 정부 시 투자 부양책, 물가 재상승, 부동산 가격 회복 효과로 경기가 회복할 것으로 전망, 긍정적 의견 유지합니다.
- 미국은 시 산업의 구조적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구경제(Old Economy) 업종들까지 실적 개선 신호를 내보이면서 시장 전체의 안정성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정 스타일이나 주도주에 과하게 쏠리지말고 S&P500이나 나스닥100에 투자하는게 좋겠습니다.
- 시장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물가 상승 우려입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 우려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불안에 기인합니다. 그러므로 전쟁 마무리 분위기가 형성되기 전까지 채권 투자는 보수적으로 임하시길 권합니다. 지금은 미국 단기채 위주로 하시다가 유가가 본격적으로 꺾이기 시작할 때 듀레이션을 늘리세요.

자산군별 장단기 투자매력도

단기(~3개월)	투자매력도	전월대비	Key idea (긍정요인 vs 부정요인)
한국주식	★★	-	낮아진 밸류에이션 vs 메모리 가격 하락 가능성
미국주식	★★★★	-	반도체 속도 조절로 시장 전체의 수급 안정성은 강화
중국주식	★★★★	-	인플레이션 재개, 정부 주도 투자 증가
단기채권	★★★★	-	미국 단기채는 괜찮고 국내 채권은 비추
장기채권	★★★★	-	가격 매력과 금리를 내리고 싶은 정부 의지
달러	★★	-	금리 인상 우려 vs 유가 및 물가 안정
금	★★	-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매수 vs 금리 상승 압력

장기(6개월~1년)	투자매력도	전월대비	Key idea (긍정요인 vs 부정요인)
한국주식	★★	-	글로벌 경기 호조 vs 메모리 가격 하락 가능성
미국주식	★★★★	-	계속되는 기업이익 고속 성장
중국주식	★★★★	-	부동산 가격 회복, 소비 개선
단기채권	★★	-	가격 변동성 낮음 vs 낮은 자본이익
장기채권	★★★★	-	유가/경기 하락하면 장기 금리 내려감
달러	★★	-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vs 미국 경기 둔화 우려
금	★★★★	-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매수 vs 금리 상승 압력

Nvidia, AMD 실적발표

최근 부채를 조달해 투자를 늘리고 있는 AI에 대해 투자자들이 의문을 제기한 상황. Nvidia와 AMD가 실적발표를 통해 투자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가 중요. 현재 AI 투자는 원활하기 때문에 실적도 예상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음.

금융통화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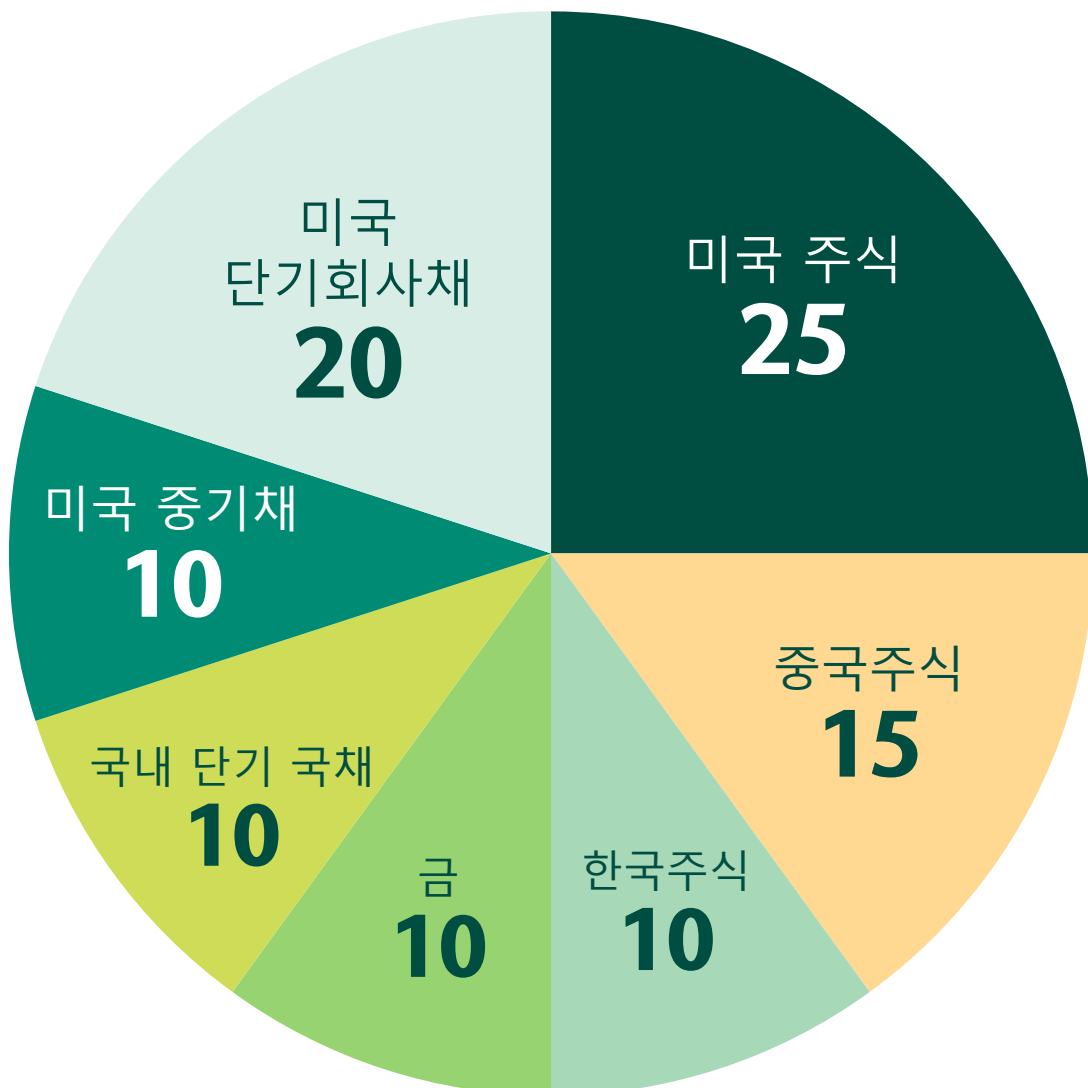
금융통화위원회는 하반기 기준금리 두차례 인상 예고. 7월 금통위에서 3년 6개월만에 기준금리를 25bp 인상했고, 8월에도 인상할지 주목. 한은 총재는 인터뷰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언급.

월	화	수	목	금
3 미 7월 S&P PMI 미 ISM제조업 지수	4 한 7월 CPI 미 AMD 실적발표 한 에코프로 실적 발표	5 미 7월 ADP 고용 중 7월 레이팅독 PMI 유 6월 소매판매 미 ISM 서비스업 지수	6	7 미 7월 고용보고서 중 7월 무역수지
10	11 일 휴장	12 미 7월 CPI	13 미 7월 PPI 일 7월 PPI	14 미 7월 소매판매
17 중 주택 가격, 생산, 소비 한 휴장(광복절 대체)	18	19 미 7월 FOMC 의사록 유 7월 CPI	20	21 한 7월 PPI 미 8월 S&P PMI
24 중 8월 PMI	25 한 7월 소비자심리지수	26 미 Nvidia 실적발표	27 한 금융통화위원회 미 연준 잭슨홀 미팅(~29)	28 유 유럽 심장학회(~31)
31				

2026년 하반기 포트폴리오 비중 제안 예시

- 위험중립적인 성향의 투자자를 전제로 하면 주식과 채권의 투자 매력은 비슷해 보입니다. 금리 수준은 채권 투자하기에 나쁘지 않고, 최근에는 오히려 매력이 높아졌습니다. 글로벌 주식은 중간 중간 조정을 받아가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금(gold)은 굵직한 상승 사이클 진행 중이라 판단합니다.
- 채권에서는 한국보다 미국 채권의 매력을 높게 봅니다. 미국은 양호한 경제와 높은 만기수익률을 감안 시 단기 회사채의 안전자산 매력이 높습니다. 반면 한국은 하반기에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높으므로 만기 보유에 대한 부담이 없는 단기채만 좋아 보입니다.
- 주식에서는 일단 미국 증시를 기본으로 편입하였습니다. 조정을 겪겠지만 긴 관점에서의 상승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한국 증시도 편입했는데, 한국보다 중국 비중을 더 높였습니다. 2025년과 2026년 상반기에 엄청난 상승을 기록한 한국 증시에 비해, 새로운 부양책과 소비 회복세가 기대되는 중국 증시의 기대수익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단위 %)



* 6개월 정도의 유지기간을 가정함

반도체 조정.
시장 전체의
안정성은 강화
중

급등 후
불가피한 조정
기간.
버텨야 할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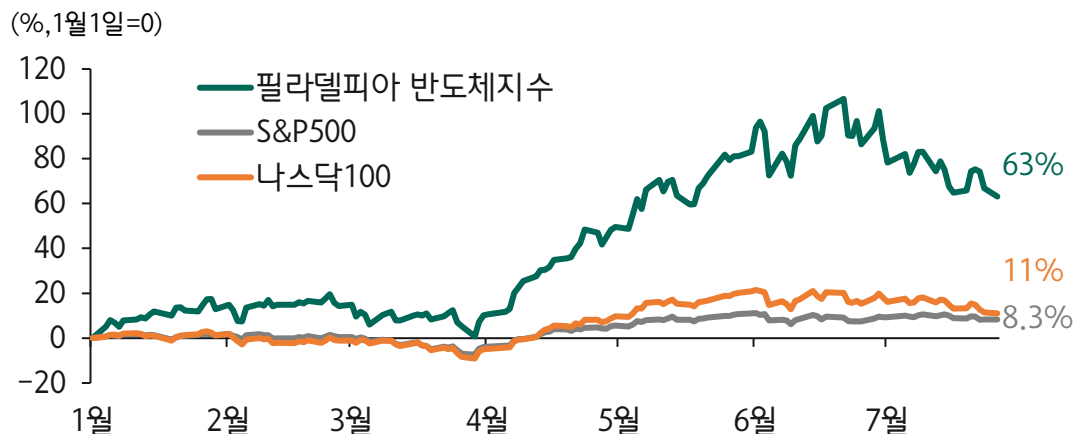
S&P 500 지수 자체는 단단하게 하방을 받치고 있으나, 반도체에 쏠렸던 투기적 포지션 청산으로 인해 해당 종목들의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반도체 섹터가 가격 조정을 겪으며 8월 한 달간 바닥을 다진 후 9~10월경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수 인기 종목에 과도하게 몰렸던 물량이 청산되면서 펀더멘털과 무관한 변동성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AI 산업의 구조적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구경제(Old Economy) 업종들까지 실적 개선 신호를 내보이면서 시장 전체의 안정성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금리 상승도 신경쓰이지만, 미국 주식은 단순히 금리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2022년 말부터 시작된 이번 상승장에서 금리 이슈로 인한 주가 조정 폭은 최대 10% 이내에 불과했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지난 4월 이후 반도체 섹터의 상승 속도가 좀 과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변동성은 크지만, S&P500이나 나스닥 지수의 하락은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특정 스타일이나 주도주에 과하게 쏠리지말고 S&P500이나 나스닥100에 투자하는게 좋겠습니다. 반도체 섹터의 단기 숨 고르기와 변동성은 펀더멘털의 훼손이 아닌 속도 조절이므로, 이번 하락을 우직하게 버텨 내신다면 가을 즈음부터 다시 상승 국면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품목별 소비는 양호

소비, 생산, 투자 등 경제지표가 여전히 부진합니다. 소비의 경우 3~5월에 이어 6월도 전년대비 0%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품목별 소비를 살펴보면 식품, 생활용품, 의류 등 소비가 전년대비 4~8% 증가했고 이구환신 축소 영향으로 가구, 가전제품, 자동차 등이 전년대비 큰폭 하락했습니다. **즉, 경기가 둔화해서 소비가 부진한 것이 아니라 이구환신 축소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7월 상반된 홍콩과 상해종합지수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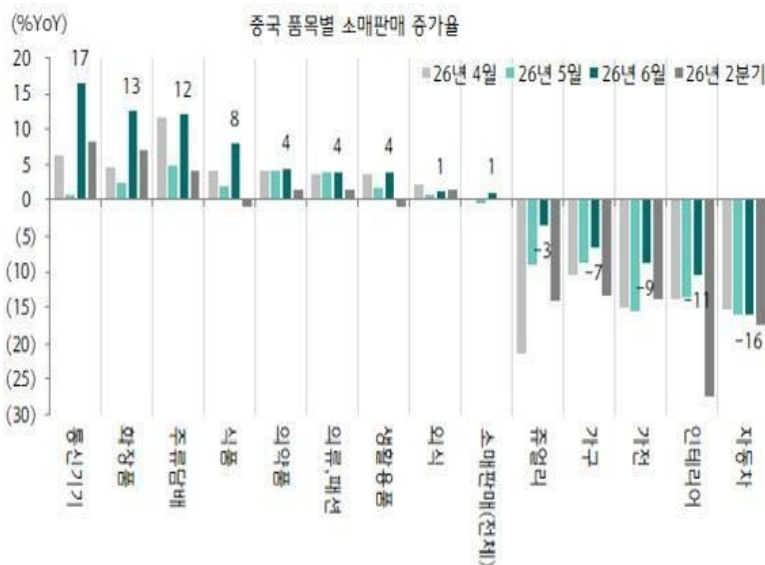
7월 항셍테크지수는 약 10%, H지수는 약 12% 상승했습니다. 특정 섹터가 아닌, 금융, 헬스케어, 소비재, 부동산, 소프트웨어 등 전반적인 산업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실적과 경기는 아직 개선되지 않았지만, 홍콩 부동산 가격 회복, 물가 회복, 정부 주도 AI 투자 등으로 인한 실적 개선 가능성을 주가가 선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상해종합지수는 상승을 주도했던 반도체가 하락해 7월 약 7% 하락했습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높은 밸류에이션은 우려되지만, 정부의 AI 투자 금액은 올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3분기부터 실적이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전망이며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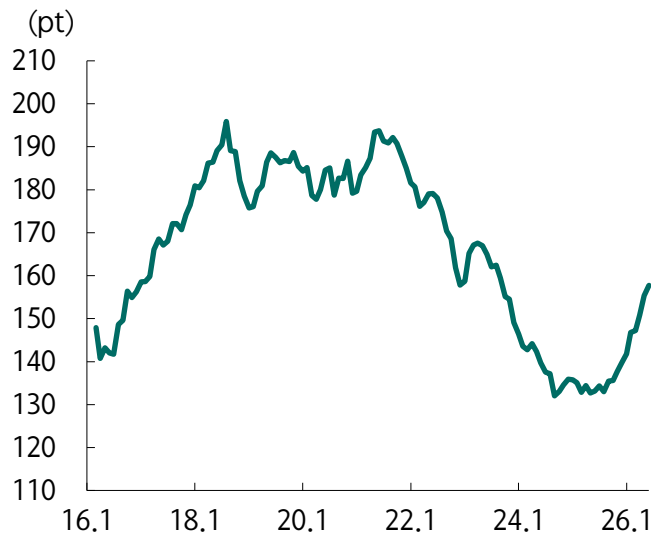
투자의견 매수 유지

반도체가 횡보하고 내수 기업들의 실적이 회복되어 중국 증시는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어 투자의견 '매수' 를 유지합니다.

[중국 품목별 소비 증가율]



[홍콩 부동산 가격 지수]



코스피 투자의견 중립 유지

코스피는 한달동안 약 30% 하락했고 반도체는 약 40% 하락했습니다. NAND 가격은 고점대비 약 20% 하락했고, DRAM 가격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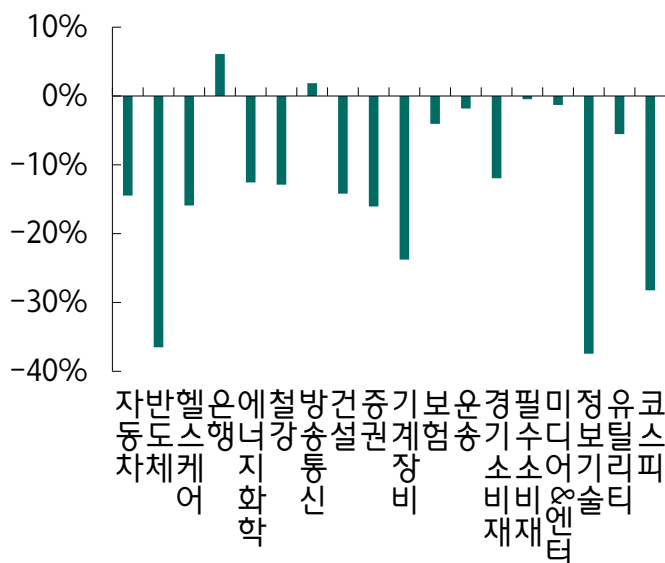
DRAM과 AI 업황은 양호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메모리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주가가 메모리 가격 하락을 상당부분 선반영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반등하거나 횡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메모리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로 인해 향후 메모리 가격 하락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고 판단되므로 코스피 투자의견은 '중립' 을 유지합니다.

글로벌 경기와 AI 투자는 증시에 우호적입니다. 유가가 하락함에 따라 물가상승률은 둔화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을 필두로 글로벌 경기도 개선되고 있으며, 반도체 외 (S&P500, 유로스탁스, 홍콩 등) 주요 주가지수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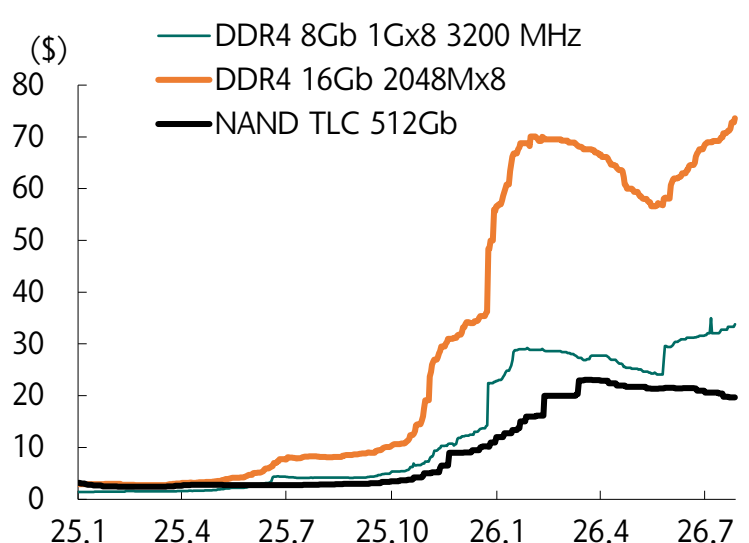
업종별 선별적 접근 권고

또한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여전히 AI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AI 버블 우려로 인한 주가 하락은 과도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내 주식에 투자한다면 특정 섹터에 쏠리지 말고 여러 섹터에 분산해서 투자하거나 인덱스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코스피 업종별 1개월 등락폭]



[DRAM과 NAND 현물 가격]



전쟁 우려
다시금
심화되며
주요국 금리
상승

물가 우려로 상승하던 국내 채권 금리가 2분기 GDP 서프라이즈를 반영하여 더 올랐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물가 우려가 존재하는 가운데 경기까지 좋아지면서 금리는 상승 흐름을 조금 더 이어갈 전망입니다. 다만 지정학적 위험과 경제 성장을 꽤 선반영했기 때문에 소폭의 상승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채권 투자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국채 금리도 지정학적 긴장감과 연준이 매파적 성향을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선제적으로 반영 중입니다. 유가가 떨어지면 물가지표도 안정되는 모습을 이미 확인했으므로, 이란 전쟁이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이기만 하면 금리 상승이 멈추고 하락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일본 장기금리도 상승 중입니다. 일본은 글로벌 금리 상승 영향과 함께 확장적 재정 정책 우려, 일본 중앙은행(BOJ)의 독립성에 대한 의문 등이 겹치며 장기 금리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대외 긴축 경계감 완화와 정치적/정책적 불확실성이 차례로 해소되는 올해 4분기 즈음 일본 장기금리가 고점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쟁 종료
기대감 생기기
전까지 채권
투자는
보수적으로

글로벌 빅테크(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인프라 지출과 LLM 개발 경쟁이 지속되고 있어 당장 반도체 업황이 꺾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즉, 갑자기 경기가 악화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므로, 현재의 시장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 변수는 물가 하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란 전쟁 이후로 물가상승률은 유가의 움직임에 연동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란 전쟁이 진정되어 유가 하락이 나타나야만 국내 금리가 상승을 멈추고 결국 하락도 가능합니다. 6월에 볼 수 있었던듯이, 전쟁만 진정되면 유가는 금방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 마무리 분위기가 형성되기 전까지 채권 투자는 보수적으로 임하시길 권합니다. 지금은 미국 단기채 위주로 하시다가 유가가 본격적으로 꺾이기 시작할 때 듀레이션을 늘리세요.

원/달러 하락의 세가지 원인

중동 전쟁과 강달러라는 대외 악재 속에서도 국내 외환시장의 수급 반전과 한국 경제의 성장이 원/달러 환율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최근 3주 새 원/달러 환율이 100원가량 하락했는데요,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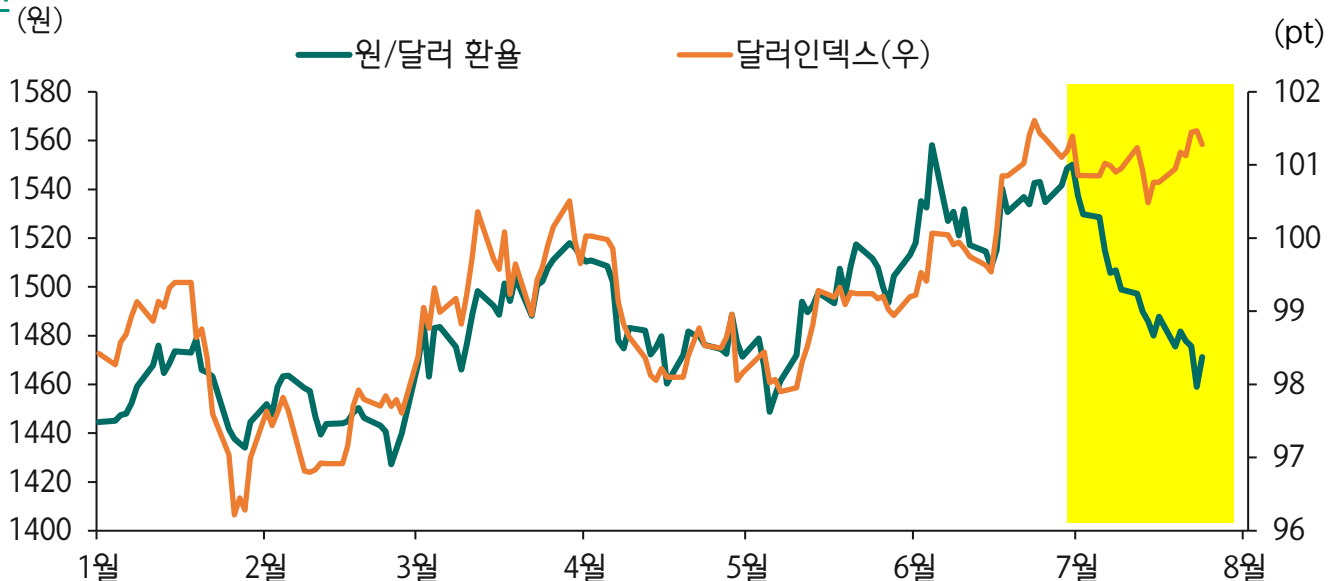
첫째, 국내 외환 수급의 극적인 반전(달러 매도)이 나타났습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을 통해 조달한 256억 달러의 막대한 자금이 국내 외환시장으로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가 "달러를 빨리 팔아야 한다"로 급변하며 수출 기업들의 달러 추격 매도가 이어졌습니다.

둘째, 상반기 국내 증시에서 대규모 순매도를 이어가던 외국인이 최근 2주간 2조 5천억 원 이상 순매수로 돌아서며 원화 강세에 일조했습니다.

셋째,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3%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도 예상됩니다.

외국인 국내주식 매매가 환율 움직임의 주 요인

당분간 외국인의 주식 매도가 진정되고 SK하이닉스의 달러 공급 물량도 유지되며 원/달러 환율이 1440원~1540원 수준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SK하이닉스의 달러 공급 물량이 대부분 소화되는 8월 이후에는, 외국인이 국내 주식 매수/매도에 따라 환율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금 가격이 부진한 이유

통상적으로 금 가격 추이는 글로벌 통화량 증가율 추이와 유사합니다. 때로는 글로벌 중시가 하락할 때 금이 안전자산으로 주목받으며 상승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두가지 상황 모두 부합하지만, 금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멀어져 가격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금의 연평균 상승률은 약 8%, 미국 통화량 증가율은 약 6% 입니다. 올해 통화량 증가율도 과거 평균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금은 과거 3년 동안 약 100% 상승했기 때문에 올해 통화량 증가율이 가격에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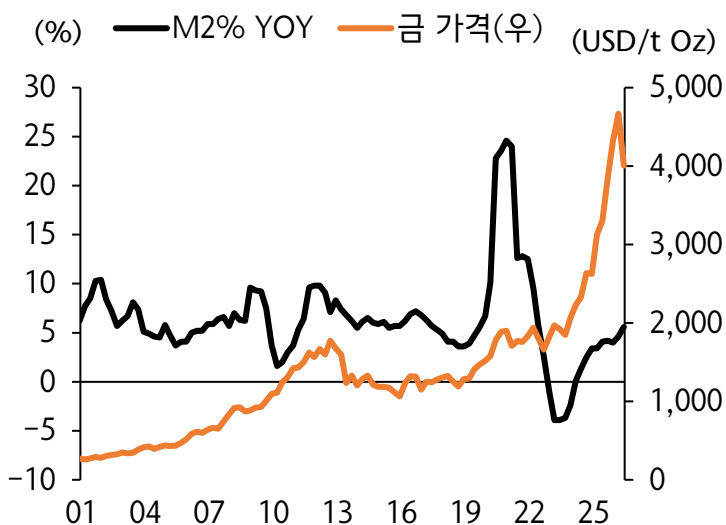
금 가격이 급등하자 수요의 약 40%를 차지하는 주얼리(장신구)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1분기의 주얼리 수요가 2년전에 비해 약 40% 감소한 것이 최근 금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단기 투자의견 중립 유지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늘리고 있지만 중앙은행은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20%에 불과하며 그들도 가격 급등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량을 천천히 늘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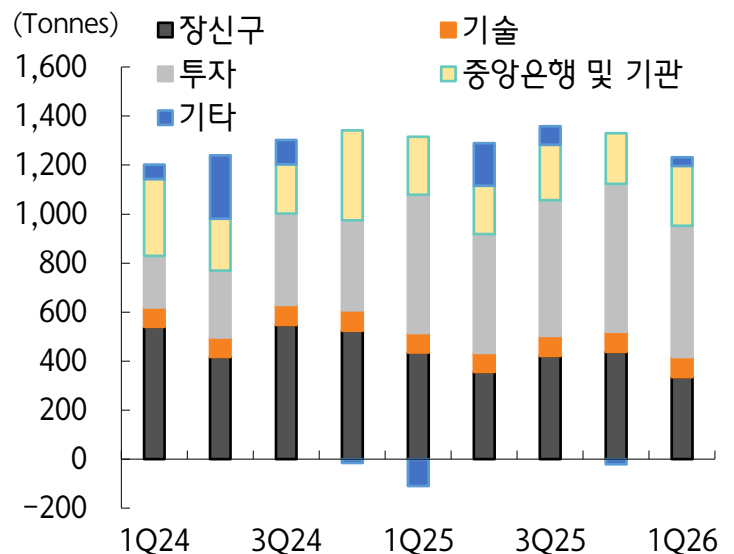
금은 고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주식 자산군과의 분산투자 효과, 인플레이션 헷징 기능 등에 주목하여 포트폴리오에 일부 편입하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M2 증가율과 금 가격]



자료 : Bloomberg, 하나더넥스트전략부리서치팀
기준 : 2026년 7월말

[글로벌 금 수요]



자료 : Bloomberg, 하나더넥스트전략부리서치팀
기준 : 2026년 7월말

※ CC브랜드 260805-0042